



01 전염병과 전쟁의 세계 경제 여파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과 세계화의 후퇴

Deloitte Insights 편집국

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100년 만에 다시 전염병 대유행과 전쟁의 동시 충격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¹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한 달 만에 평화협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분쟁 사태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²

이번 전쟁은 경제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비중이 큰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에서 벌어진 데다,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서방 동맹국들의 전례 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장기적이고 큰 세계 경제로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³

1 조선일보, "전염병 그리고 전쟁, 100년만에 동시타격...가난한 시간이 온다", March 24, 2022

2 Financial Times, "Russia says it will 'dramatically reduce' military activity around Kyiv," March 30, 2022 (Accessed: March 30, 2022); CNN, "US intel assess 'major' strategy shift by Russia as it moves some forces away from Kyiv,"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March 21, 2022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가던 1918년에 대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이루게 한 변화가 가속화되었다.⁵ 이러한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염병과 전쟁의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및 외교통상 정책은 물론 기업과 경제 주체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⁶

본 고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와 인플레이션, 에너지 공급 충격, 공급망 재편 전망 및 미중 관계의 전개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팬데믹 이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앞날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선부른 판단이나 결론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전쟁의 경제적 영향: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글로벌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 주요국 재정 및 통화정책 지원 등에 따라 2022년은 물론 2023년까지 세계 경제의 회복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넘어, 불확실한 기간 동안 예측하기 힘들 규모의 충격을 줄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⁷

이미 COVID-19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경제에 이번 전쟁은 단기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이미 개시된 세계적 질서의 심오한 변화를 팬데믹과 전쟁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⁴

4 김양희, "포스트 COVID-19 국제경제 질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IFANS, April 17, 2020
 5 한홍열 외,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October 29, 2020
 6 Ira Kalish, "Thoughts on the future of globalization," Deloitte weekly global economic update,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7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2: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March 14, 2022 (Accessed: March 30, 202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양국을 합쳐도 세계 GDP의 2%에 불과할 정도로 작고, 대다수 국가들과 양자 교역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금융 연계도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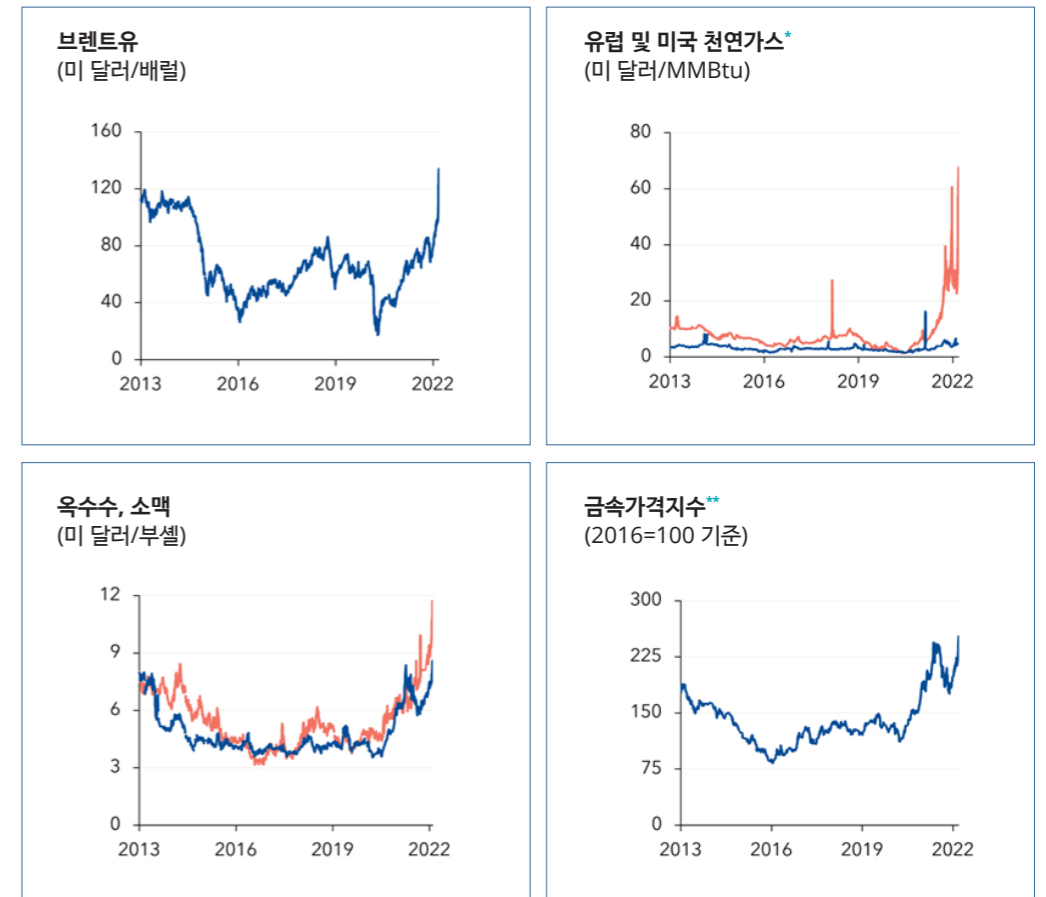
하지만 이들 나라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와 광물자원, 비료 및 천연가스는 20%나 차지하는 주요 상품 생산국이다. 석유의 경우도 11% 비중을 차지한다. 전쟁의 화마 속에 석유와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폭등했고 밀과 식량 원자재 가격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곡물,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1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출처: 블룸버그, 미국 농무부(USDA),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IMF 계산
 *네덜란드 TTF와 헨리허브를 대리 지표로 사용
 **기초금속가격지수에는 알루미늄, 코발트, 전기동, 철광석, 납, 몰리브덴, 니켈, 우라늄, 아연 등이 포함됨

전쟁은 세 가지 채널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첫째, 식품 및 에너지와 같은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심화를 통해 소득 가치를 잠식하고 수요를 억제한다. 둘째, 주변국 경제가 경제적 제재로 인한 교역과 공급망, 송금 중단과 급증하는 난민의 유입에 따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신뢰 감소와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촉발하고,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촉발될 수 있다.⁸

또한 이러한 글로벌 채널의 파급효과 외에도 직접 교역, 관광, 금융 익스포저 등이 큰 나라가 더 큰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석유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들이 재정 및 무역수지 부담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는 반면, 중동 및 아프리카 등 해당 원자재 수출국들은 급등한 국제 가격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식량의 경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코카서

스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불안 위험이 있다.

앞서 COVID-19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을 감안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5%로 낮춘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3.6%까지 크게 낮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다.

IMF는 2022년 4월 19일 제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전쟁이 크나큰 인도적 위기를 촉발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⁹

IMF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1년 6.1%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6%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1월 WEO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각각 0.8%포인트 및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2023년 이후 중기 전망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 수준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 IMF, "Global Economic Uncertainty, Surging Amid War, May Slow Growth", April 15, 2022(Accessed: April 17, 2022)

그림 2 전쟁은 세계 경제 회복을 짓누른다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2022년 4월), 지역별 비교(연간 경제 성장률 %)

	2021	2022	2023
세계	6.1	3.6	3.6
미국	5.7	3.7	2.3
유럽연합	5.3	2.8	2.3
중동&중앙아시아	5.7	4.6	3.7
신흥, 개발 도상국	7.3	5.4	5.6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6.8	2.5	2.5
사하라 사막 이남	4.5	3.8	4.0

출처: IMF WEO(2022 Arpil)

나아가 IMF는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 등 물가 압력 확대에 인플레이션 전망을 선진국 5.7%,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8.7%로 각각 1월 예상치에 비해 1.8% 및 2.8%포인트 높여 잡았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올해 성장률 2.5%에 물가 상승률 4.0%로 각각 큰 폭으로 수정했다. 1월 전망에 비해서 성장률은 0.5%포인트 낮추고, 물가는 0.9%포인트 높

인 것이다.¹⁰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은 정부나 중앙은행(각각 3.1%, 3.0%)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Ratings)(각각 2.7%)보다 낮은 것이다. 최근 제시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IMF는 2023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제시한 2.9%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림 3 2022~2023년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실업률(연간 % 상승률, 물가는 연 평균, 경상수지는 GDP 대비 % 비율)

	실질 GDP			소비자 물가			경상수지			실업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아시아	6.5	4.9	5.1	2.0	3.2	2.7	2.2	1.5	1.3
선진 아시아	3.6	2.8	2.8	1.2	2.4	1.7	5.0	3.8	3.6	3.4	3.1	3.0
일본	1.6	2.4	2.3	-0.3	1.0	0.8	2.9	2.4	2.7	2.8	2.6	2.4
한국	4.0	2.5	2.9	2.5	4.0	2.4	4.9	2.2	3.2	3.7	3.6	3.5
타이완, 중국영토	6.3	3.2	2.9	1.8	2.3	2.2	14.7	13.2	11.6	4.0	3.6	3.6
호주	4.7	4.2	2.5	2.8	3.9	2.7	3.5	3.0	0.5	5.1	4.0	4.3
싱가포르	7.6	4.0	2.9	2.3	3.5	2.0	18.1	13.0	12.7	2.6	2.4	2.4
홍콩 SAR	6.4	0.5	4.9	1.6	1.9	2.1	11.2	10.9	9.4	5.2	5.7	4.0
뉴질랜드	5.6	2.7	2.6	3.9	5.9	3.5	-5.8	-6.5	-5.3	3.8	3.6	3.9
마카오 SAR	18.0	15.5	23.3	0.0	2.8	2.7	13.8	3.5	14.9	3.0	2.6	1.8
신흥 및 개발아시아	7.3	5.4	5.6	2.2	3.5	2.9	1.0	0.6	0.4
중국	8.1	4.4	5.1	0.9	2.1	1.8	1.8	1.1	1.0	4.0	3.7	3.6
인도	8.9	8.2	6.9	5.5	6.1	4.8	-1.6	-3.1	-2.7
아세안(동남아 국가 연합)	3.4	5.3	5.9	2.0	3.5	3.2	-0.1	2.0	0.9
인도네시아	3.7	5.4	6.0	1.6	3.3	3.3	0.3	4.5	0.5	6.5	6.0	5.6
태국	1.6	3.3	4.3	1.2	3.5	2.8	-2.1	-0.1	2.0	1.5	1.0	1.0
베트남	2.6	6.0	7.2	1.9	3.8	3.2	-0.5	-0.1	0.8	2.7	2.4	2.3
필리핀	5.6	6.5	6.3	3.9	4.3	3.7	-1.8	-2.7	-2.2	7.8	5.8	5.4
말레이시아	3.1	5.6	5.5	2.5	3.0	2.4	3.5	3.9	3.9	4.7	4.5	4.3
기타 신흥 및 개발 아시아	3.0	4.9	5.5	5.0	8.7	7.2	-2.5	-2.5	-2.0
메모랜덤												
신흥 아시아	7.4	5.4	5.6	2.1	3.2	2.8	1.1	0.7	0.5

출처: IMF WEO(2022 Arpil)

참고: 일부 국가 수치는 회계연도 기준. 신흥아시아는 아세안 5개국과 중국, 인도로 구성

8 IMF, "How War in Ukraine Is Reverberating Across World's Regions," IMF Blog, March 15, 2022 (Accessed: March 28, 2022)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2022 APR,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April 19,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04/19/world-economic-outlook-april-2022 (Accessed: April 20, 2022))

10 연합뉴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로 내리고 물가는 4.0%로 올려", 2022년 4월 1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1361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_related (검색일: 2022년 4월 20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 선진국 순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큰 충격 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작년 10월에 독일의 올해 성장률은 4.9%에 달할 것으로 제시했지만, 지금은 불과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이 현재 고심하고 있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 금수 조치에 실제로 나설 경우, 유럽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IMF는 경고했다.

미국 성장률은 3.7%, 중국은 4.4%로 각각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1.5%포인트, 1.2%포인트 낮춰 제시했는데, 중국의 경우 전쟁의 영향 보다는 전염병 확산과 강력한 당국의 봉쇄령에 따른 충격을 더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2차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원자재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한 타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세계 교역에 미치는 충격 ▲채무불이행 위험 등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상승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꼽았다. 다만 1970년대 원자재 가격 폭등에 이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1970년대에 세계 GDP 당 석유 사용량이 오늘날에 비해 3.5배 더 많은 데다, 석유 가격 급등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스트레스의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긴축통화정책에 나서는 것도 압력을 더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IMF의 세계 물가 전망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실질적인 압력 강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플레이션이 좀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과 EU의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이 각각 7.7%,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제시한 수치보다 각각 4.2%포인트, 3.6%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올해 물가 압력 상승 전망에는 주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므로, 앞으로 2년 동안 공급망 혼란이 가라앉으면 물가 압력이 일정한 부분 낮아질 것

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양상이 장기화하면 임금-물가 스파이럴(wage-price spiral)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성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IMF는 이러한 세계 경제 전망이 하방 위험(downside risk)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전쟁의 악화 ▲주요국 사회적 긴장 고조 ▲팬데믹의 부활 ▲중국 경기 둔화 악화 ▲인플레이션 장기화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상환 문제의 확대 ▲지정학적 긴장 강화 ▲기후 위기 악화 등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전쟁의 빠른 종결로 인한 상품 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무역 재개를 꼽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4.5%)보다 약 1%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으며, OECD 회원국 전체의 성장률도 기존 제시한 3.9% 보다 약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¹¹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거의 2.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전쟁 발발 직후 2주 동안 발생한 원자재 상품 및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 1년 동안 지속되고 러시아 경제가 10%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15% 포인트에 달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됐다. OECD는 일단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표 GDP의 0.5%포인트 규모의 재정지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OECD의 거시모형 분석에 의하면 이번 전쟁의 충격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역시 유럽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국가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과 미주 지역 회원국은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작고 일부는 산유국이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와 높은 물가가 가계 소득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올해 정책금리를 평균 1%포인트 인상하고, 주요 신흥시장은 약 1.5%포인트 높이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4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OECD 전망 기준선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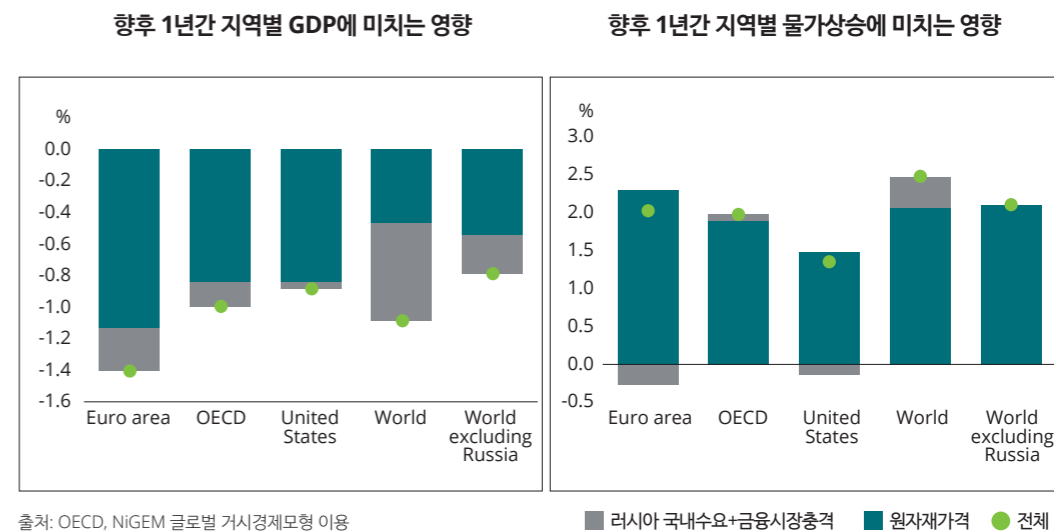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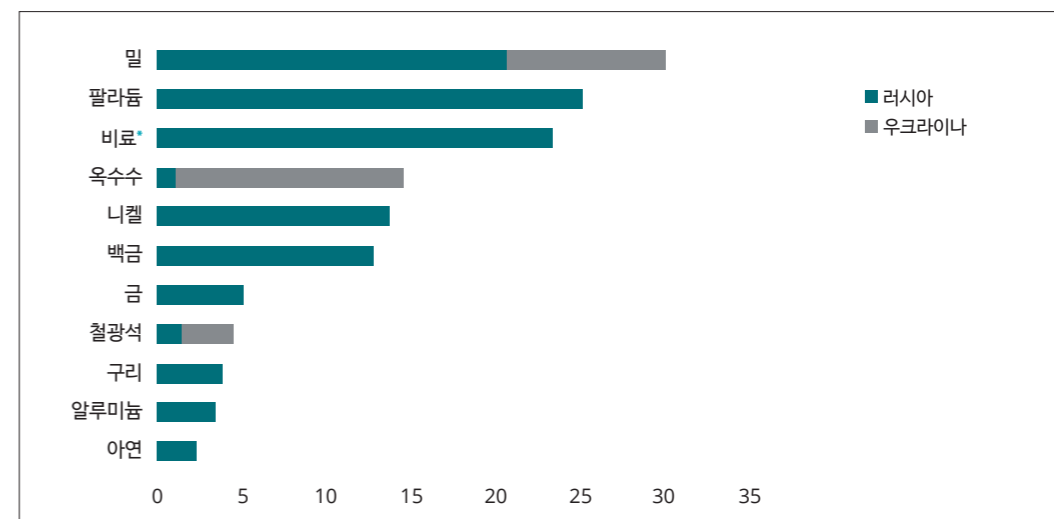


그림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원자재 수출

2020년 세계 수출내 비중(%)



주: *칼륨 비료.
출처: 컴트레이드(Comtrade) 데이터; OECD 계산.

11 OECD,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March 17, 2022 (Accessed: March 2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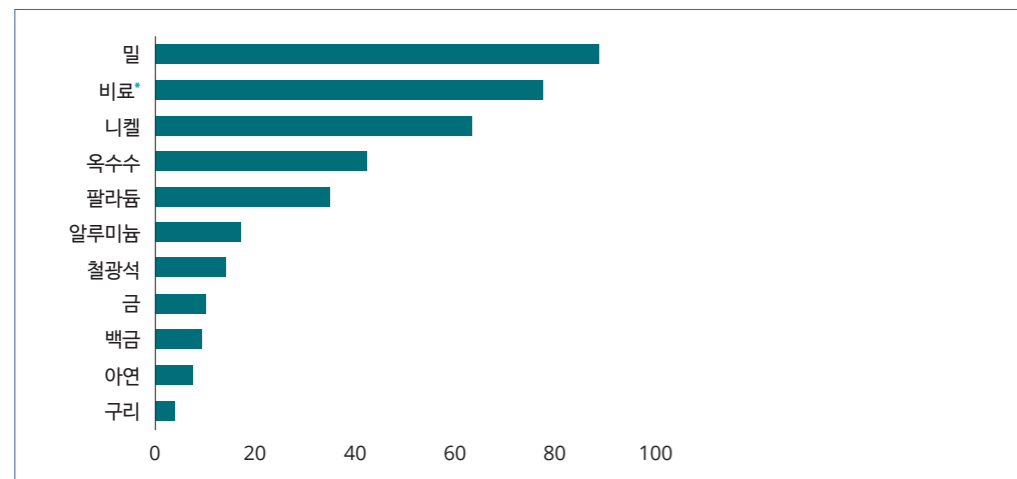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신흥시장 및 개도도상국 내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최대 12개국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¹² 이미 전쟁 발생 이전에 COVID-19 팬데믹으로 개도국의 총부채가 재정 수입의 250%에 달하는 등 5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었다. 세계은행은 이것이 체계적인 글로벌 부채 위기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부채 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교역 및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인데다, 인플레이션 부담과 공급망 차질, 글로벌 수요 감소 영향에 취약하다.

그림 6

상품 원자재 가격

2022년 1월 평균가격 대비 변화율(%)



주: *탄산칼륨(potash),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공동재료. 비료 가격은 1월 평균에서 2월 평균 사이의 변화율(%)이며, 다른 모든 품목들은 2022년 1월 평균가격과 2월24일부터 3월14일 사이 평균가격의 비교치임
출처: 레피니티브(Refinitiv);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농업전망 데이터베이스 및 OECD 계산.

이미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 Ratings)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2%에서 3.5%로 큰 폭 하향하고, 2023년 전망치도 2.8%로 0.2%포인트 낮췄다. 특히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기존보다 1.5%포인트나 낮춘 반면, 미국의 경우 0.2%포인트 낮춘 3.5%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¹³

피치는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위협에 빠뜨렸는데, 이러한 제재가 조만간 중단될 것 같지 않다면서, 특히 러시아 석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은 완전한 에너지 부족 사태와 제한 배급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2019년에 유로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는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OPEC이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맞먹는다.



올해 1월 보고서에서 IMF는 우리나라 2022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3.0%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한 달 전 제시한 3.0%보다 낮은 2.7%를 제시했고¹⁴, 앞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피치의 경우는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수정했다.¹⁵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가 연평균 100달러 수준으로 오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삼은 3%

에 못 미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수정을 시사했다. 이미 2%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성장률을 낮출 태세다.¹⁶

공급망 혼란과 세계화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화의 퇴보에 대해 얘기해왔지만, 최근 10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쟁 발발 이후 한 달 만에 보낸 2022년 주주 서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 30년간 경험한 세계화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¹⁷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공급망의 혼란이 이미 상당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금융 거래와 국제 교역 상의 제약에 직면한 기업들은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국제 질서의 취약성에 놀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팬데믹 때 받은 충격처럼, 이번 사태는 세계 경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해 이룩한 세계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¹⁸

세계 각국에 공급망을 구축한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OEM)인 독일 폭스바겐은 중국 비중을 낮추고 유럽과 미국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지역별 자동차 생산 비율을 조절하는 등 공급망 전략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¹⁹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공급망 경색

14 한국경제, "무디스, 올 성장률 전망 3.0→2.7%로 하향", March 17, 2022

15 뉴시스, "피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0%→2.7% 하향(종합)", March 22, 2022(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6 매일일보, "국내외 기관 성장률 줄줄이 하향", March 23, 2022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7 Larry Fink, "Larry Fink's 2022 Chairman's Letter: To our shareholders," March 24, 2022 (Accessed: March 27, 2022)

18 Ira Kalish, "Thoughts on the future of globalization," Deloitte weekly global economic update,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19 한국경제, "폭스바겐, 공급망 재편...중의존 줄이고 美로 간다", March 29, 2022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12 World Bank, "Are we ready for the coming spate of debt crises?," March 28, 2022 (Accessed: March 30, 2022)

13 Fitch Ratings, "World Growth Forecasts Cut as Inflation Intensifies due to War," March 21, 2022 (Accessed: March 28, 2022)

여파를 호되게 겪은 결과, 가격 경쟁력보다 안정성을 더 중시하게 됐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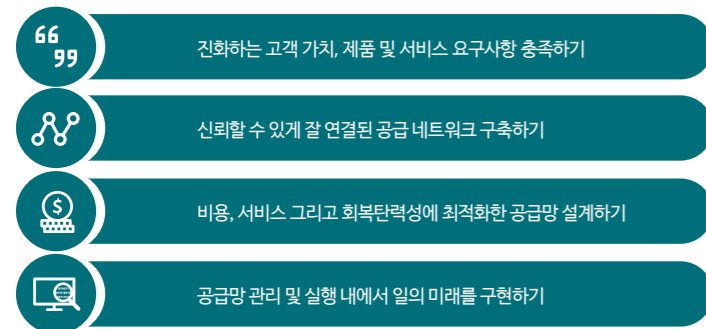
앞서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Herbert Diess)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COVID-19 팬데믹보다 지역 경제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²⁰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은 엄청난 가격 인상,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유럽과 독일 경제에 특히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유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7%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커서 미국의 러시아 석유 및 가스 금수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유럽 가스 수입의 45%를 차지한다. 특히 독일의 의존도가 높는데, 이와 관련해 디스 CEO는 “독일과 같이 러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의

존하는 나라의 경우 러시아와의 거래 단절은 곧 에너지 구매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 전망과 시민들의 비난 속에 독일을 비롯한 EU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²¹

세계화의 역행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193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의 실패 관세율 인상을 이끌어 냈고, 2009~2011년 유로존의 위기 이후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결정으로 갈등과 불신이 쌓인 상태였다. 여기에 COVID-19 팬데믹으로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공급사슬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 보건으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 국가로서의 능력 상실과 일방주의적 태도 등과 같은 파열음이 등장했다.²²

그림 7
포스트-팬데믹 공급망: 뉴노멀 시대의 주요 변화들



출처: 딜로이트 분석, "Looking beyond the horizon: Preparing today's supply chains to thrive in uncertainty", December 11, 2020

20 Financial Times, "VW chief warns economic damage from war risks being worse than pandemic," February 10, 2022
 21 Politico, "EU aims to slash Russian gas dependence by two-thirds this year," March 8, 2022 (Accessed: March 29, 2022)
 22 강선주, "COVID-19 팬데믹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Focus, March 2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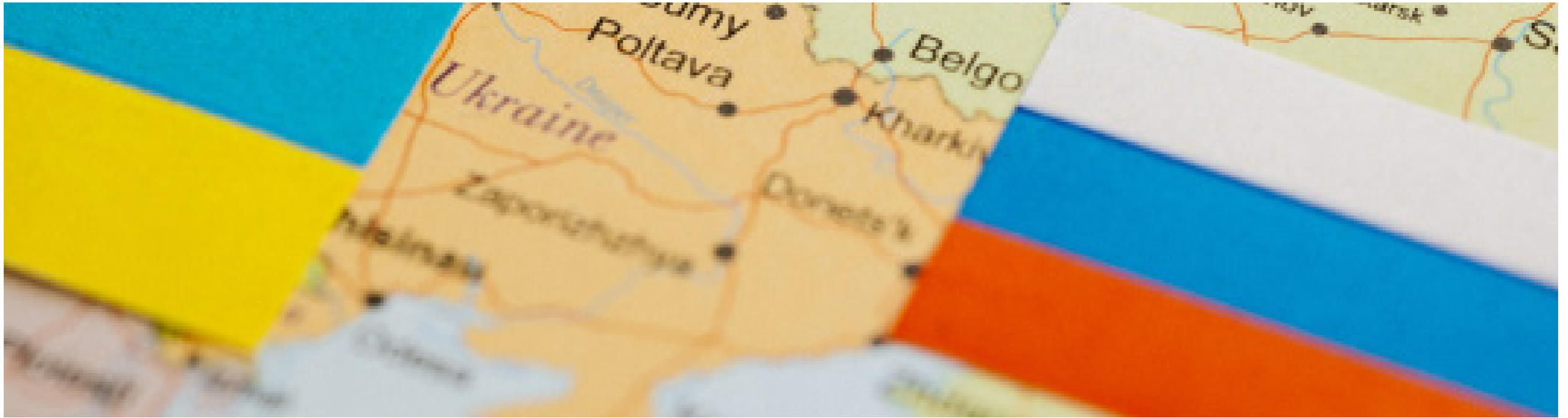
팬데믹 사태 이후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부 효율성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공급망에 대한 집중을 줄이고 다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효율성'에서 '회복탄력성'으로의 전환이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달리 지역 혹은 국내 공급망, 혹은 핵심 부품 및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공급망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³ 지난 2020년 4분기 딜로이트 북미 지역 CFO 시그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공급망을 좀 더 다변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37%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²⁴

이제까지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은 중국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태도는 서방의 대러 제재와 충돌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비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맹국들과 교역량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글로벌 대기업들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지정학적으로 서방 경제국들과 대립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도 서방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앞서 중국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다변화, 즉 중국 중심에서의 탈세계화 움직임

직임을 진행 중이었다. 효율성을 중시한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화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히 생산 비용의 상승과 이러한 부담의 소비자로의 전가, 실질 구매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공급난은 세계 식량시장의 위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위기의 심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탈세계화는 글로벌 기업들 간의 공생 관계를 무너뜨리고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관세와 투자 제한, 세계화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공급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들은 계속 최저 비용과 최고 속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다각화 혹은 탈세계화는 전례 없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일 수도 있으며, 팬데믹을 극복하고 전쟁이 끝난다면 다시 보다 강화된 개선된 방식의 세계화가 전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²⁵

23 Deloitte CFO Insights, "Supply chain risks: How to identify and mitigate your weakest links," March 5, 2021(Accessed: March 29, 2022)
 24 Deloitte "CFO Signals™: Q4 2020," December 4, 2022 (Accessed: March 29, 2022)
 25 Ira Kalish, "How sanctions impact Russia and global economy," Deloitte Insights, March 25, 2022; Ira Kalish, "Thoughts on the future of globalization"; Deloitte weekly global economic update, March 29, 2022 (Accessed: March 30, 2022)



팬데믹+전쟁: 경제사적 분기점 도래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대륙에서 제 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멈춘 1945년 이후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경제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계기로, 서방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²⁶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분리되는 '새로운 경제적 갈등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²⁷

러시아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전쟁과 관련한 경제 제재로 인한 금융 및 비즈니스 연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넘어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접근이 동결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러시아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고, 위험회피가 강해졌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와 기업들은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감내해야

하고, 통화가치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상업 항공 및 화물선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비즈니스 비용이 올라가고 아예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주요국 국방비 지출 증가, 에너지 시장 구조의 전환, 결제시스템의 파편화, 외환보유액 구성의 변화 등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경제가 블록화되면 그 동안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정보와 특허, 노하우의 확산으로 얻었던 이익의 일부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 단일한 글로벌 시스템이 주는 효율성이 줄어들고, 전체 시스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달러화의 지배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⁸

전후 반세기 넘게 주요 경제국들은 상대적으로 개방된 세계 경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기구들에 크게 의존해왔다. 특히 1991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자 사회주의 동구권이 세계 교역 및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평화 배당금'과 '세계화 기금'의 혜택이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²⁹ 더이상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 거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경제 주체들은 수요와 공급 여건이나 물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1970년대 아랍 전쟁 시기에도 때때로 긴장과 마찰 혹은 일시적인 봉쇄로 인해 안정이 깨지는 경험도 반복해서 발생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2019년부터 발생한 COVID-19 팬데믹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유발하면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 안정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³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경제 제재의 악순환이 장기화된다면, 1930년대 보호무역에 따른 세계 경제의 파괴적인 충격과 같은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과거 '무역 금지'(trade embargo)는 특정 국가나 여러

국가와의 상거래, 무역의 일부 혹은 전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외교적 제재 수단이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제 주체도 함께 받아야 했다.³¹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처벌하기 위해 경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이러한 경제적 무기가 러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 주체들에게 가져올 무차별적인 고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³²

게다가 이미 앞서 서구 주요국가들의 탈세계화 흐름, 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혹은 자원과 공급망 동결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따른 세계 경제의 '파편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세계 경제가 번영하게 된 세계화가 역전된다면, 국가와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분열된 세계 경제는 저효율화와 저성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부록2. '콘월 컨센서스'와 미중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 참조)

26 경제 제재란 어떤 국가의 국제법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국가가 어떠한 경제적 해악을 미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출입 금지, 자산의 동결·몰수, 항공기 탑승금지, 경제원조금지 등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출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 sanctions économiques)』 항목, (검색일: 2022년 3월 4일)

27 "A new age of economic conflict," The Economist, March 5, 2022 (Accessed: March 4, 2022)

28 OECD,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March 17, 2022 (Accessed: March 28, 2022)

29 Ibid.

30 Nouriel Roubini, "Russia's War and the Global Economy," Project Syndicate, February 25, 2022 (Accessed: March 4, 2022)

31 Jon Danielsson, Charles Goodhart, Robert Macrae, "Sanctions, war, and systemic risk in 1914 and 2022," Voxeu.org, March 10, 2022 (Accessed: March 27, 2022)

32 Raghuram G. Rajan, "Economic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ject Syndicate, March 17, 2022 (Accessed: March 27, 2022)



Box. 러시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현황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연초부터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으로 인한 기대로 인해 이미 오름세였던 원유 및 가스 가격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고유가가 장기 지속할 경우 석유 수입국에게는 경제적 조세와 같은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을 높인다.

원유 가격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의 생산 동향, 산유국을 둘러싼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화 가치와 투기적 수요를 가능하게 하는 투기자금 동향, 소비지역의 계절적 수요 및 재고 변동, 경제 동향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불안 요인도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공급 차질이나 소비국의 수요 폭증 우려감이 가수요를 발생시키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선물시장에서 미래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회피(hedging) 혹은 투기(speculation) 등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원유가 선물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현물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³³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러시아 석유 및 가스 현황 자료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 정리해 보자. 러시아는 세계 제3위의 원유 생산국이다. 러시아는 2021년 기준으로 하루에 원유와 콘덴세이트 약 1,050만 배럴을 생산하여 세계 공급량의 14%를 차지하며,³⁴ 석유와 정유제품은 하루에 약 720만 배럴가량 수출하고 있다.³⁵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는 매장량으로 세계 1위, 생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2021년에 7,620억입방미터(762bcm)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2,100억입방미터를 수출했다.³⁶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서방의 제재 차원에서 2022년 3월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국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타 지역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럽 일대의 원유 가격을 대표하는 브렌트유의 가격이 전쟁 발생 직전 배럴당 99.08달러(2월 24일)에서 3월 8일까지 29% 넘게 상승한 배럴당 128달러에 이르렀고, WTI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배럴당 92.81달러에서 123.7달러로 33% 이상 상승하였다.³⁷



33 국제 원유는 선물시장과 실물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이 중에서 실물시장은 다시 현물시장과 기간계약시장으로 구분된다. 세계 3대 원유인 서부텍사스주(WTI)와 북해 브렌트유(Brent)는 각각 세계 최대 원자재 선물시장인 뉴욕의 NYMEX와 런던의 ICE에서 거래되며, 중동산 두바이유(Dubai)는 중동과 아시아 현물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석유 이야기"
 34 EIA, "what countries are the top producers and consumers of oil?" (Accessed: March 30, 2022)
 35 The Washington Post, Steven et al, "Here's where Russian oil flows," March 8, 2022
 36 IEA, "Energy Fact Sheet: Why does Russian oil and gas matter?," March 21, 2022
 37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제원유가격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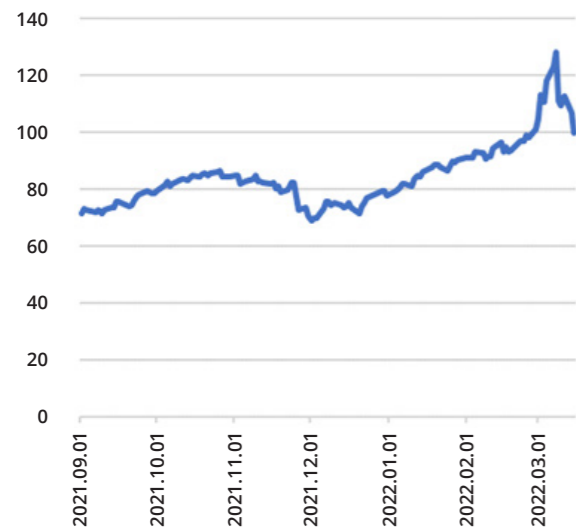
표1. 세계 주요 원유생산국과 소비국

세계 10대 원유생산국과 세계비율(%) (2020)			세계 10대 원유소비국과 세계비율(%) (2019)		
	백만배럴/일	비율(%)		백만배럴/일	비율(%)
미국	18.61	20%	미국	20.54	20%
사우디아라비아	10.81	12%	중국	14.01	14%
러시아	10.50	11%	인도	4.92	5%
캐나다	5.23	6%	일본	3.74	4%
중국	4.86	5%	러시아	3.70	4%
이라크	4.16	4%	사우디아라비아	3.18	3%
UAE	3.78	4%	브라질	3.14	4%
브라질	3.77	4%	한국	2.60	3%
이란	3.01	3%	캐나다	2.51	3%
쿠웨이트	2.75	3%	독일	2.35	2%
10개국 합계	67.48	72%	10개국 합계	60.69	60%
세계	93.86		세계	100.23	

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앞으로도 국제 유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여파 ▲추가 증산에 소극적인 산유국 행보 ▲효과가 제한적인 주요 소비국들의 비축유 방출 ▲지지부진한 이란 핵합의 진전 ▲각국의 COVID-19 출구전략수립 및 이에 따른 원유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³⁸

그림 1
브렌트(Brent)유 가격추세 (단위: \$/배럴)
(21년 09월 01일 ~ 22년 0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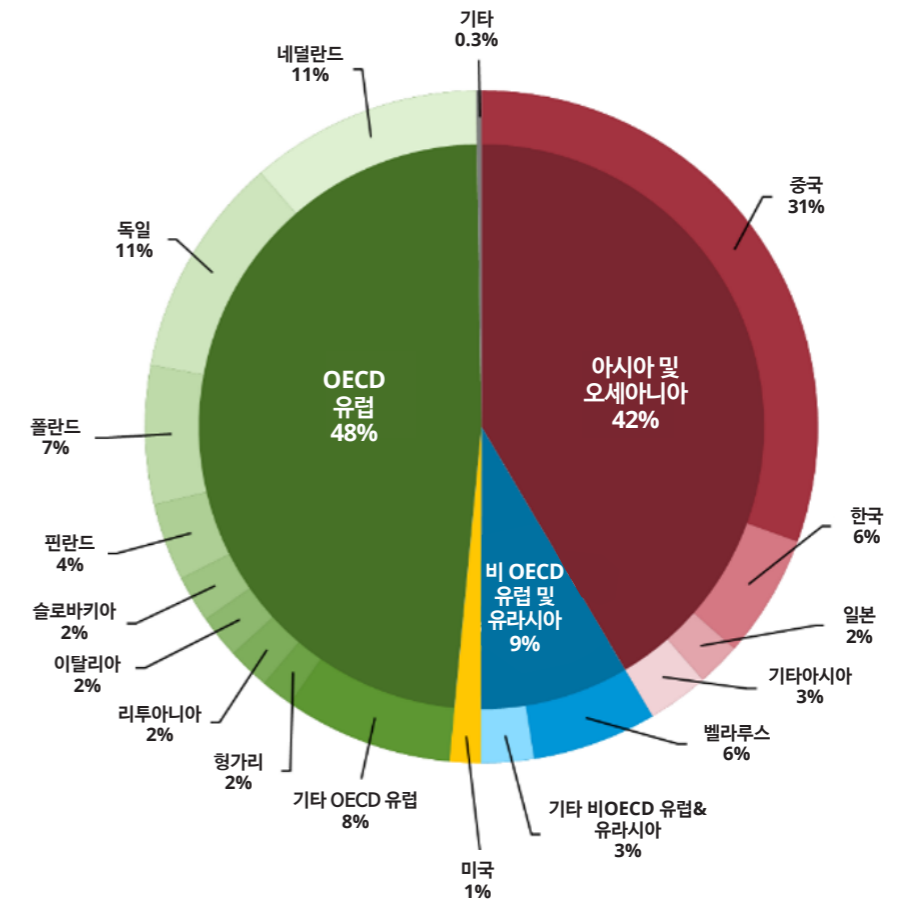
출처: 한국석유공사

러시아산 석유의 비중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제재 카드를 선택하였지만, 러시아 원유 수출지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1%에 불과하다(그림2). 러시아의 원유의 대부분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개별 국가 중 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 31%, 네덜란드 11%, 독일 11%, 폴란드 7%, 벨라루스 6%, 한국 6%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의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향후 미국의 제재의 동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계원유시장에서의 러시아산 원유공급 차질의 여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2020년 러시아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지역 비율



출처: Graph by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sed on Russian export statistics and partner country import statistics from Global Trade Tracker and on delivery statistics from Gazprom

38 한국일보, "110달러도 뚫어버린 국제유가..."정점 모른다" 관측 5가지 이유, March 4, 2022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하루 720만 배럴)을 빠르게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급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로부터 최대 250만 배럴이 추가적으로 증산될 수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최대 130만 배럴, 미국으로부터 76만 배럴, 베네수엘라로부터 60만 배럴이 공급될 수 있다고 추산되지만,³⁹ 이를 다 합쳐도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에 미치지 못하며, 다양한 국제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증산까지 이뤄질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증산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해당물량이 수입국가에 실제로 적시에 운송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⁴⁰ 수요 측면에서 OECD 원유 수입국가의 총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유럽 OECD 국가에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표2, 그림3).

향후 비 OECD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 및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유 수요량이 더 늘어나면 해당지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 비중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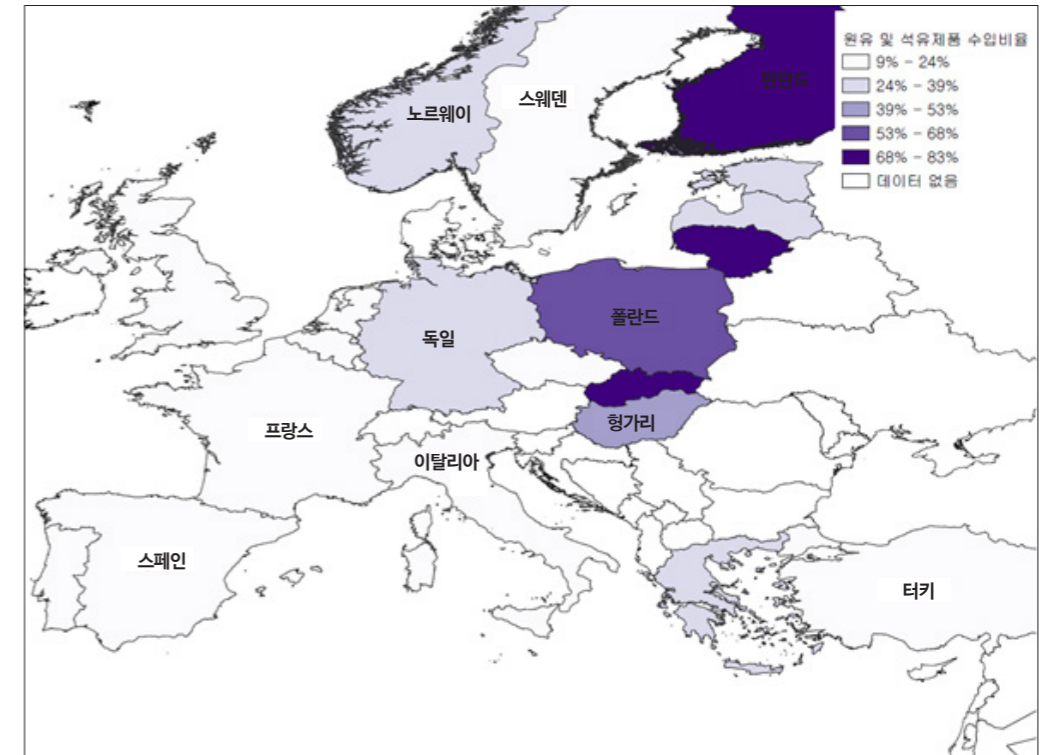
이처럼 러시아가 국제 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가 이를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주요 OECD 국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과 러시아산 비율 (2021년 11월 기준)

OECD 주요국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 (단위: 하루 1,000 배럴)	러시아산 물량	러시아산 비율
아시아			
호주	960	0	0%
일본	3,993	126	3%
한국	3,678	313	9%
북미 및 중남미			
미국	8,533	626	7%
캐나다	960	0	0%
멕시코	1,036	0	0%
유럽			
독일	2,748	835	30%
프랑스	1,844	233	13%
이탈리아	1,521	204	13%
네덜란드	3,184	748	23%
폴란드	878	509	58%
스페인	1,677	183	11%
영국	1,567	170	11%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그림 3 유럽 OECD국가의 총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대비 러시아산 비율 (2021년 11월 기준)



출처: IEA 자료, 델로이트인사이트

39 The Washington Post, 'Here's where Russian oil flows,' March 8, 2022

40 CNBC, "'There's just no way': Analysts say alternative supplies wouldn't be able to fully replace Russian oil," March 8, 2022

러시아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2(Nord Stream 2)' 가스관 프로젝트는 전쟁 발발 이후 승인이 중단됐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수송하는 총 연장 1,200km 길이의 가스관이며, 건설 비용에만 약 11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트스트림2가 가동되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⁴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속되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럽의 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는 2월 24일 당일 51%나 폭등하여 134.32유로/MWh으로 치솟았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며 유럽 가스 수급에 대한 불안감에 가격은 더욱 급등하여 227.20유로/MWh(3월 7일 기준)까지 오르기도 하였다.⁴²

이러한 유럽의 천연가스가격 급등은 아시아 시장 천연가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2월에만 아시아 천연가스(JKM) 가격은 전월 대비 102.4%나 상승하였다. 다만 이는 유럽 TTF가 같은 기간 48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상승 폭이다.⁴³

하나의 거대한 전 세계 시장처럼 반응하는 원유시장과 달리 천연가스시장은 지역별로 다르게 작동하며 천연가스 가격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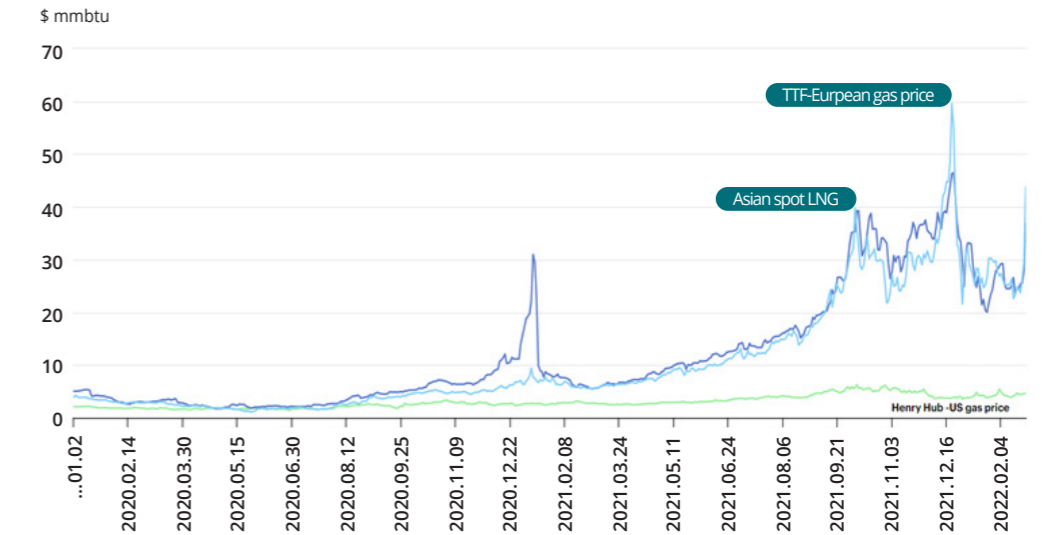
천연가스의 운송비용과 함께 각각의 서로 다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혼합기체로서, 가스전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킨 기체상태의 연료용 가스를 말한다. 천연가스 운송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형태에 따라 가스관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와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로 구분된다.⁴⁴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의 천연가스 운송은 PNG를 통하여 이뤄지며, 거리가 먼 지역까지의 천연가스 운송은 LNG를 통해서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5,000km이상의 장거리를 운송할 경우에는 LNG수송이 PNG 수송보다 경제성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PNG든 LNG이든 가격 책정 방식으로는 3가지의 주요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가스-온-가스'(GOG)로 불리는 허브 가격 결정 방식으로, 이는 전적으로 가스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두 번째로는 유가 에스컬레이션("OPE")으로도 불리는 유가 지수 연계 방식은 석유나 다른 정제된 연료 가격을 토대로 천연가스 계약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규제하는 가격책정 방식도 있다.⁴⁶

41 서울경제, "바이든, '러시아 탱크, 우크라이나 넘어가면 노드스트림2는 끝내버릴 것'", February 8, 2022
 42 Trading Economics, EU Natural Gas (Accessed: March 30, 2022)
 43 경향신문, "비축유 방출에도 유가 100달러 돌파... '가스 가격이 더 심각'", March 2, 2022
 44 한국가스공사, 지식허브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45 한국가스공사 공식 네이버블로그, "천연가스 국제 전망이 궁금해? 블록버스터급 천연가스 밸류체인 흐름 읽기!", October 26, 2021
 46 CME Group, "Is Oil-Indexation Still Relevant for Pricing Natural Gas?," October 1, 2020

그림 4
지역별 천연가스가격 추세
(2020년 1월 ~ 2022년 2월)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역별로 북미 지역 천연가스 시장은 순수하게 허브 기반 가격 책정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시장은 여전히 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계약방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유가 기준 가격 책정 방법에서 허브 가격 책정 방법으로의 전환 수준이 유럽 하위 지역 전반에 걸쳐 저마다 다른 형국이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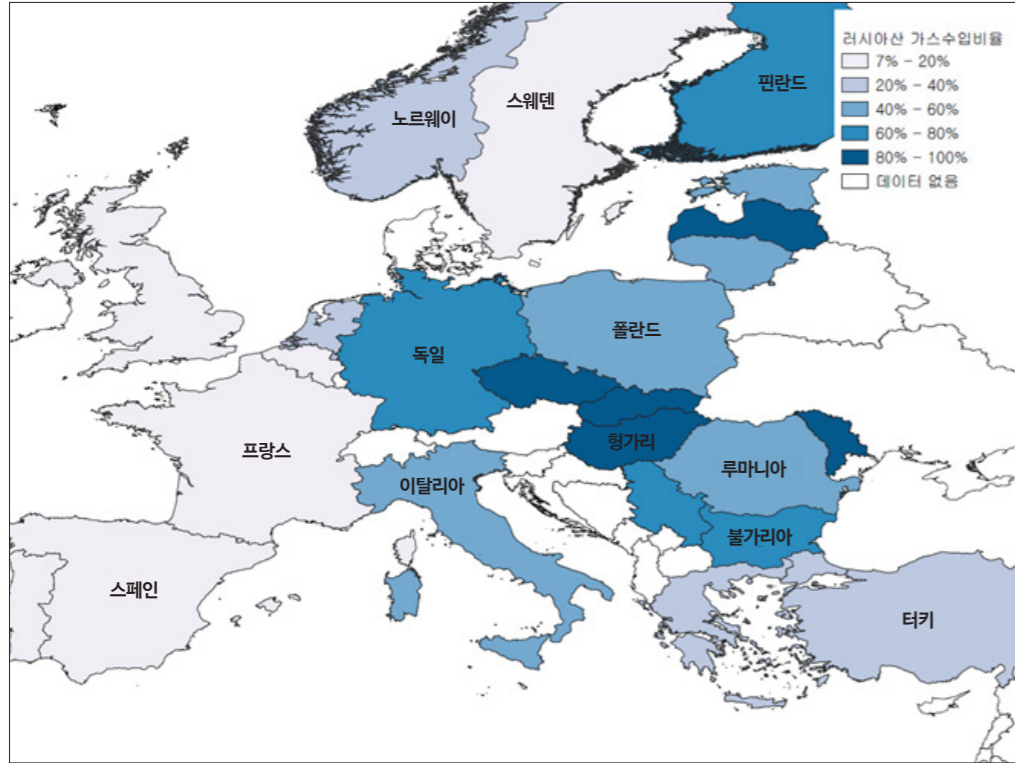
공급 측면에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스 생산, 순 수입량, 가스재고 수준 등이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날씨 및 기상조건, 경제적 상황, 국제유가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

고 있고, 유럽 전체적으로는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한다(그림5). 이러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카타르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LNG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의 가동이 이미 최대치에 이르렀고,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서 최근에 승인한 신규 LNG터미널은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3년 이후에나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천연가스 재기화 설비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동부지역의 국가들에 설치된 가스관 시스템과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서쪽 지역의 유럽 국가들로부터 동쪽지역의 유럽 국가들이 재기화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⁴⁸

47 Ibid
 48 WSJ, "Europe Fears It Could Be Too Late to Shake Off Russian Gas Addiction," March 5, 2022

그림 5
유럽 OECD 국가의 총 가스수입 중 러시아산 비율



출처: NPR, Newstestman 자료, 딜로이트인사이트

세계 천연가스 10대 생산 및 소비국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미국을 이어서 세계 제2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하지만 자국 내의 소비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잉여분을 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표3).

표3. 2020년 세계 주요 천연가스시장⁴⁹

세계 10대 천연가스 생산국(2020)		세계 10대 천연가스 소비국(2020)	
생산국	bcm	소비국	bcm
미국	960	미국	871
러시아	705	러시아	484
이란	234	중국	326
중국	195	이란	221
캐나다	172	캐나다	117
카타르	167	일본	100
호주	154	사우디아라비아	97
노르웨이	116	독일	93
사우디아라비아	97	멕시코	78
알제리	84	UAE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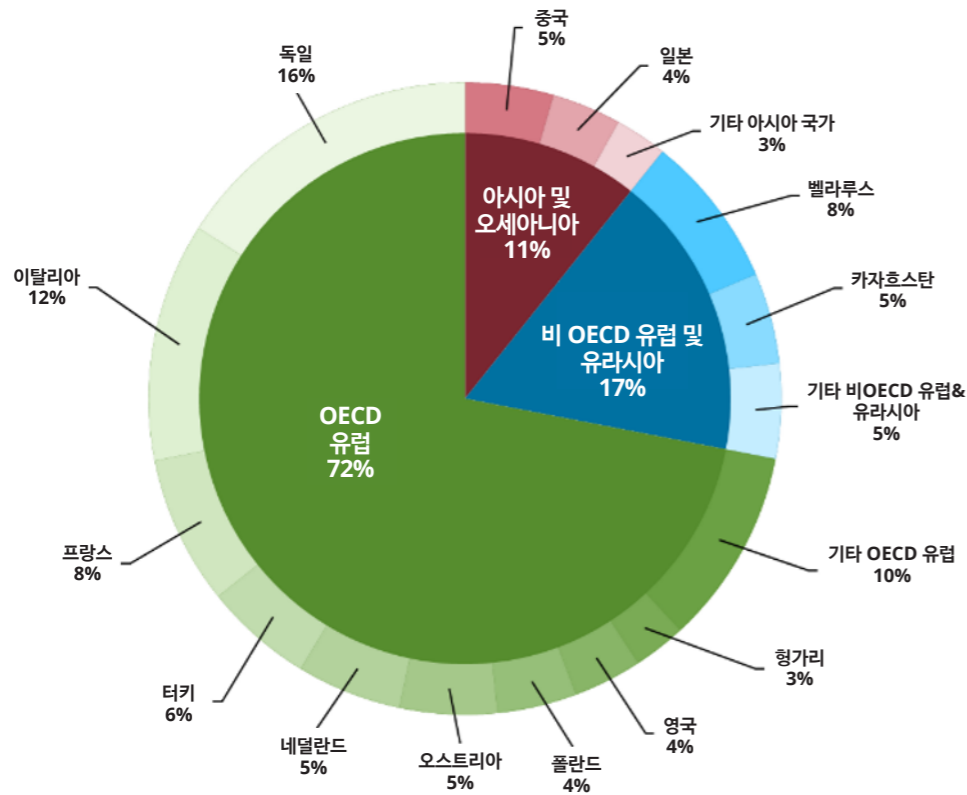
세계 10대 천연가스 수입국(2020)		세계 10대 천연가스 수출국(2020)	
수입국	bcm	수출국	bcm
중국	125.8	러시아	241.8
일본	94.6	호주	112.3
독일	80.6	노르웨이	110.8
이탈리아	65.9	미국	78.7
한국	52.8	캐나다	47.6
터키	47.3	알제리	40
멕시코	42.9	나이지리아	28.4
프랑스	37.1	인도네시아	24.3
영국	35.1	말레이시아	21.6
인도	33.7	카자흐스탄	12.4

출처: Enerdata

49 Enerdata, World Energy & Climate Statistics – Yearbook 2021 (Accessed: March 30, 2022)

구체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지역으로서 OECD 유럽국가지역이 72%를 점유하며, 비 OECD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이 17%,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이 11%를 점유하고 있다(그림6). 특히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전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 중 독일이 16%, 이탈리아가 12%, 프랑스 8%, 벨라루스 8%, 중국 5%를 점유하고 있다(그림6).

그림 6
2020년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지역 비율



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러시아 수출, Global Trade Tracker의 파트너 국가 수입 및 가즈프롬(Gazprom) 출하 통계 기반.

정리하자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가 현재 천연가스 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상태에서는 OECD 유럽지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향후 비 OECD 유럽 및 유라시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비 중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높은 OECD 유럽국가가 천연가스 운송 및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타 지역의 천연가스로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동향

2022년 3월 8일 미국이 즉각적이며 전면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였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분야에 대한 해외 각국의 동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2월 초에 이미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증가시키기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금지 조치를 따르기 보다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중국의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미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금지 조치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지역인 유럽 대륙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영국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며,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고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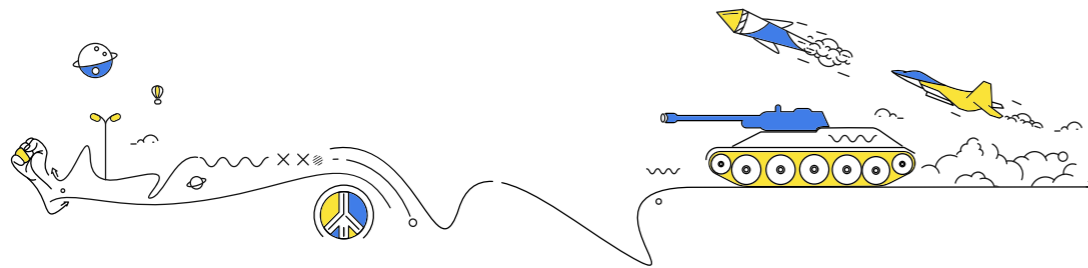
표4. 러시아 에너지 관련 해외 주요국가 동향

주요국가	날짜	내용
중국 ^{50,51}	2/3	중국 CNPC와 러시아 Rosneft Oil은 향후 10년간 러시아산 석유 1억 톤(연간 1,000만 톤)을 중국에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함. 이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 석유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2/4	중국 CNPC와 러시아 Gazprom은 현재 가동 중인 중국 동부노선 가스관을 통해서 연간 10bcm의 PNG를 중국에 추가로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함. 이로 인해서 양측의 연간 공급계약물량이 기존의 38bcm에서 48bcm으로 증가함.
	3/9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도 ⁵²	3/15	인도 석유장관에 의하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일본 ⁵³	3/9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을 위하여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미국 ⁵⁴	3/8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을 즉각 중단함.
영국 ⁵⁵	3/8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함. 천연가스는 향후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유럽연합(EU) ^{56,57}	3/9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2년말까지 러시아산 가스의존도를 현재보다 3분의 2로 줄이고, 이후에도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완전히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50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드 22-4호
 51 한국경제, "중국, 우방국 러시아 지원 명분...에너지·원자재 저가매수 나섰다", March 9, 2022
 52 The New York Times, "India says it's in talks with Russia about increasing oil imports," March 15, 2022
 53 The Ashahi Shimbun, "Japan will not ban imports of Russian oil, natural gas," March 10, 2022
 54 WSJ, "Biden Bans Imports of Russian Oil, Natural Gas," March 8, 2022
 55 Reuters, "Britain to phase out Russian oil imports by end of 2022," March 9, 2022
 56 Reuters, "EU rolls out plan to cut Russia gas dependency this year," March 9, 2022
 57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U plans proposal to phase out Russian fossil fuels by 2027: von der Leyen," March 11, 2022

부록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공통

• **경영 계획 수립 측면 영향:** 한국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한국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경영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한국의 매출 기준 상위 대기업 33곳 중 7곳(21.2%)이 '일부 계획 수정 중' 그리고 5곳(15.2%)은 '재수립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환율, 공급망 붕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국가 간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을 주축으로 한 서방 국가 연합 및 친 서방 국가와 러시아 및 중국 연합의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러 사이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의 세계적 확산(제3차 세계대전 발생 우려)⁵⁹, 미-중 사이의 대만을 둘러싼 전쟁 발발 가능성, 글로벌 패권/기술 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통상의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등 한국 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위협으로 작용할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불확실성의 증폭과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한국 주요 대기업들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타 한국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인플레이션 및 공급/수요 측면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등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생산량이 높은 알루미늄, 니켈 등과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인 밀, 옥수수 등의 가격 급등이 특히 심각하다.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및 기타 원자재 수입 금지 조치 및 이에 대응한 러시아의 자국 원산지 제품 수출 금지, 제한 품목 확대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⁶⁰ 러시아의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281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품목에는 반도체 소재, 전자 소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기업 일부도 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 부품 조달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⁶¹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 또한 최종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 **재무/금융 측면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이 수반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 은행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⁶² 이에 맞서 러시아 정부가 한국과 주요 서방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 기업에 대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부령을 공포했으며 한국 주요 기업들은 거래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루블화의 가치는 연초 대비 약 80% 수준으로 하락하여(3월 30일 기준, 그림1 참조)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손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수출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1
미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58 동아일보, "유가·환율·공급망·오미크론 4중고, 대기업 3분의1 이상 경영계획 수정", March 14, 2022
 59 The New York Times, "This Is How World War III Begins," March 15, 2022
 60 Deloitte, "How sanctions impact Russia and the global economy," March 15, 2022
 61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수출 금지 제한 및 품목 리스트", March 17, 2022
 62 Deloitte, "Trade restrictions and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its allies in response to the invasion of Ukraine," March 10, 2022

주요 산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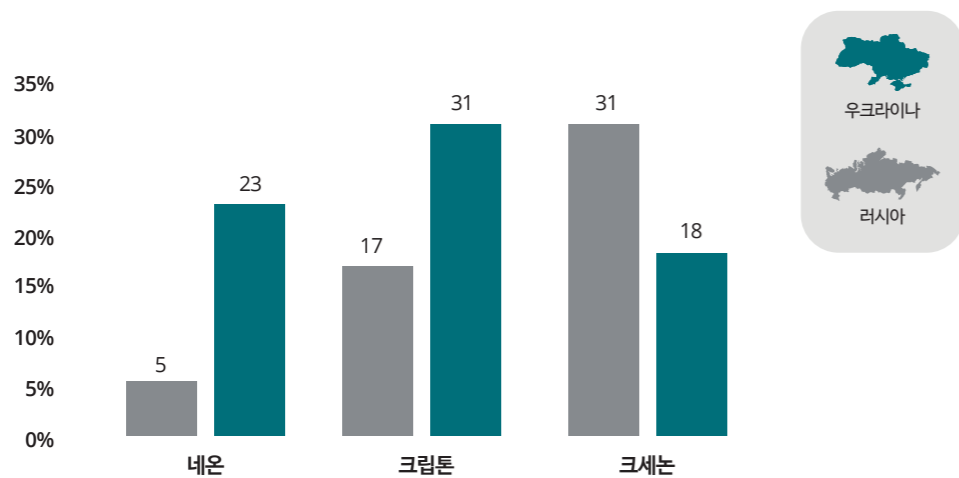
(1) 반도체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제논), 아르곤 등 희소 가스의 주요 공급 국가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생산용 레이저 광원에 사용되는 크립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국가가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점유했다. 이번 사태로 희소 가스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은 원재료 조달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그림 2 참조), 이에 따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측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⁶³
- **영업/수요 측면 영향:** 수요 측면에서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에도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추가 수요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자동차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조달 문제로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은 3월7일 기준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공, 해운, 철도 경로가 봉쇄되면서 물류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연간 23만대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22.6%로 2위(그림3 참조)를 기록하고 있다.⁶⁴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의 자동차 구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가별 수입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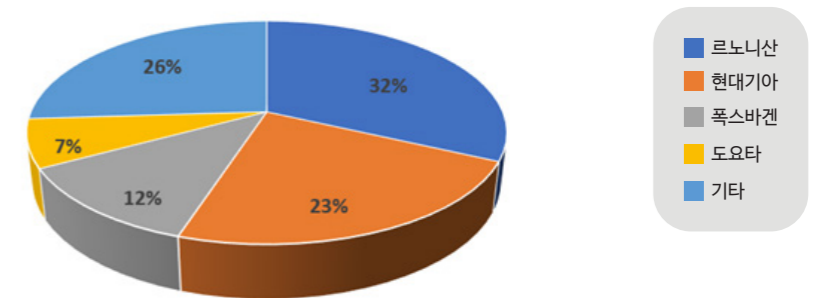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3) 전자/가전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이 3월 4일 공식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고객에 대한 모든 제품 선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가전 기업 중 인텔의 칩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 측면에서의 차질도 예상된다. 세계 1,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 역시 러시아 항구에서 모든 해운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탈 러시아' 움직임에 동참한 상태. 현재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에서 TV 공장을,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에서 가전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재고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운 물류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품 조달을 받지 못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한국 대표 전자/가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있어 러시아는 매출의 약 2%를 차지하는 동유럽의 거점 시장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러시아에서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 역시 지난해 기준 약 30%대로 1위다. 이 때문에 쉽게 영업 중단을 하는 것이 난처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삼성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왔다.⁶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주요기업들이 러시아를 '보이콧' 하는 추세에 동참하는 것과 기존에 쌓아온 러시아 시장 내 입지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2021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출처: TrendForce

63 머니투데이, "러시아가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릴까?," March 5, 2022
 64 조선비즈, "우크라 사태,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재가동 불투명," March 8, 2022
 65 YTN, "우크라이나 부총리, 삼성에 러시아 판매 중단 요청," March 6, 2022

(4) 철강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조강 생산량 기준 각각 5위, 12위 국가이며 수출량 기준으로는 각각 2위, 9위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주력 원자재 수출상품으로, 고급 강판 제조에 사용되는 니켈,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 역시 연초 대비 30~40% 올랐다. 제련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인 페로실리콘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확대될수록 철강 원자재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스코 등 한국 철강 기업들도 원가 상승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⁶⁶
- **영업/수요 측면 영향:** 철강 생산 기업은 주요 수요자인 자동차, 조선, 건설 기업과의 공급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수요 기업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반도체 수급난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동차 생산용 강판 가격 인상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에 사용되는 후판 가격도 2020년 하반기 톤당 60만원에서 현재 11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 것을 고려했을 때 조선 기업들도 추가적인 철강 가격 인상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에너지/석유화학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및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에너지/석유화학 산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러시아 원유의 세계 시장 유통이 중단될 경우 국제 유가의 추가적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 정유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도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며 한국에 수입되는 나프타 비중은 러시아산이 23.4%로 1위다. 전쟁이 장기화될 시 석유화학 기업의 원재료 확보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한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의 경우 생산 원가는 상승하나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혜 업종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⁶⁷ 기업별로 공급망과 판매/유통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품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라 원재료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6) 건설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철근과 기타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 시공사와 철근 및 콘크리트 공급사와의 가격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는 철강재 제조의 원료인 철 스크랩과 반제품 빌릿의 주요 공급원이 러시아임을 주장하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를 2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설 업계는 소규모 조정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⁸
- **영업/수요 측면 영향:**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영업 측면을 살펴봤을 때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주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건설 인력의 철수,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⁶⁹

(7) 조선/해운/물류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조선 산업은 주 원재료인 철강 가격 급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철강 기업들도 원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철강재 납품 가격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조선사와 철강사 간 후판 가격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물류 분야에서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 대형 수송 선박 및 차량 운영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한국의 주요 조선 3사의 최근 주요 수주 실적 가운데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선박은 7척으로 파악되는데 대 러시아 금융 제재가 지속될 경우 발주 취소 및 대금 결제 불이행 등 잠재적 리스크가 높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EU가 러시아에 대한 LNG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⁷⁰ 이에 따라 수송 선박을 통한 LNG 수출입, 유통 비중이 높아져 선박 발주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⁷¹ 해운/물류 산업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항구로의 입출항이 중단되면서 세계 물동량의 80%가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해운 기업도 영업 활동 및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8) 방위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주요 첨단 무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철강, 티타늄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티타늄 생산국인데 러시아의 주요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가 지속된다면 일부 품목 무기 생산이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⁷²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본 세계의 주요 군사 약소국들의 방위력 증강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무기 수출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66 한국경제, "원료탄 값 500달러 돌파, 철강제품 줄 인상 예고", March 6, 2022

67 매일경제, "유가 100달러 시대, 정유주 전성시대 오나", March 6, 2022

68 파이낸셜 이코노믹 TV, "러시아 사태 일파만파, 국내 건설업계 영향은?", March 7, 2022

69 이코노미스트,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내 건설사 러시아사업 지연 불가피", March 7, 2022

70 Deloitte, "A view from London," March 14, 2022

71 한국경제, "주요 발주처로 급부상한 러시아, 韓조선업, 경제 제재 영향은?", March 25, 2022

72 매일경제, "유럽 방위비 지출확대 움직임에 방위산업 반색", March 8, 2022

(9) 유통/소비재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유통/소비재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식품 업계이다. 우크라이나의 곡창 지대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 밀이 생산되는데 이는 한국의 주요 식품(제과, 제빵, 라면 등) 기업에게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⁷³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식품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러시아 시장에 현지 진출한 오리온, 롯데제과 같은 한국 식품기업들의 매출 감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 각종 대금 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비재 기업들에 대한 세계적인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지속될 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타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10) IT/통신/엔터테인먼트 산업

- **공급망 측면 영향:**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통신, 전산 관련 주요 시설이 파괴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 및 주요 서방국가와 러시아 및 친러 국가 간 핵심 정보 획득을 위한 사이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⁷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IT/통신/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나 타 산업과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 **영업/수요 측면 영향:** 타 산업에 비해서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 플랫폼 기업과 게임, OTT 등 IT 콘텐츠 기업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및 주요 서방국가와 러시아 및 친러 국가 간 대규모 사이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저변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11) 금융 산업

- **증시 측면 영향:** 러-우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그 정도가 크진 않을 것이다. 전쟁이 개시된 2월 24일부터 3월 18일 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 주식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시가 총액 1~100위)의 하락폭이 가장 심했는데 예상보다는 미미한 수치라고 간주할 수 있는 0.74%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⁷⁵ 즉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소비 및 투자 둔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지속될 시 한국 증시는 지속적인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은행업 측면 영향:** 한국 주요 은행들의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비중은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예상되지는 않는다.⁷⁶ 하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주요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연쇄작용으로 은행 및 관련 금융사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73 아시아투데이, "급등하는 밀가격, 라면-제과-제빵 업계", March 10, 2022

7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2년 8호", March 4, 2022

75 매일경제, "불확실한 거시 환경에 코스피 대형주만 하락", March 21, 2022

76 한국일보, "국내 금융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위험노출액은 0.4% 불과", February 25, 2022

부록 2

'콘월 컨센서스'와 미중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

시대적 요구

2019년 말에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팬데믹으로 전개됐다. 이번 사태는 오늘날 세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밀접한 상호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팬데믹 사태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OVID-19 팬데믹은 3년 차인 2022년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변이 출현과 확산,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유발, 이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긴축정책 구사 등으로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보급과 함께 지배적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 및 치명률 하락으로 인해 감염 재확산에도 패닉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포스트 코로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⁷⁶

그런데 COVID-19 팬데믹은 그 발생과 확산, 그리고 국가별 대응 과정에서 보건 위기를 넘어서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 관계가 팬데믹 발생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⁷⁸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세계는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주도 국가의 부재, 즉 글로벌 리더십의 붕괴를 경험했다. 감염병 발생 원인 파악과 대응 과정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나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불신

이 심화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 위기가 세계 경제적 위기로 전환되는 와중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은 후퇴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의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과거 유럽 중세 시대의 흑사병과 1918년 스페인 독감과 같은 팬데믹 사태가 인류 역사와 국제 질서를 뒤바꾼 경험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탈세계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차 세계대전이 지나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확립된 이후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가 펼쳐졌지만,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 2016년 브렉시트 결정,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등을 통해 한계가 드러났다. 포스트 코로나, 미중 간 패권 경쟁, 디지털 및 그린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 해결 등 다수의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원칙의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개최한 주요 7개국(G7)이 성명서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의제들, 이른바 '콘월 컨센서스'(Cornwall Consensus)가 주목받았다.

76 IMF, "Rising caseloads, a disrupted recovery, and higher inflation,"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5, 2022
77 강선주, "COVID-19 팬데믹의 국제경기경제적 의미", 외교안보연구원 IFANS, March 25, 2020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범주 내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패키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1989년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국가의 지원조건으로 10개조의 시장경제적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유래되었다.⁷⁹ 10개조를 살펴보면 재정균형, 보건과 교육 등 공공재, 조세기초 확대와 형평성을 결합한 조세개혁, 금리자유화, 경쟁적인 환율, 무역자유화,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자유화, 민영화, 경쟁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이 있다.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탈냉전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탈냉전시대에 복잡하게 개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를 헤쳐 나가는 이데올로기적 지도원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⁸⁰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며 서구 선진국가들 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채택되어 1990년대에 동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각국의 개혁에 적용됐다.⁸¹

콘월 컨센서스

콘월 G7 회담은 앞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참가 행사였다.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G7을 상대화한 이후, 이를 다시 복권하려 시도한 첫 행보였던 셈이다.

당시 G7 정상들은 COVID-19 이후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COVID-19 이후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참여국간에 공유된 의제'(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에는 ▲보건 ▲경제회복과 일자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미래를 향한 개혁 ▲기후와 환경 ▲성평등 ▲국제사회의 책임과 공동의 행동 등 총 7가지 포함됐다.⁸²

이른바 '콘월 컨센서스'로 불리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이 앞서 수십년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해온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세계화를 강화하며 국제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빈부격차 심화, 문화적 갈등 등 세계화에 수반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21세기의 일련의 사건들로 워싱턴 컨센서스가 위기에 봉착하였다. 첫째,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시장주의'가 흔들렸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선진국은 그들이 이전부터 개발도상국에 요구하였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원칙과 다르게 행동하였다. 둘째, 워싱턴 컨센서스의 '민주주의'가 흔들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중국에서의 경

79 Britannica, Washington Consensus (Accessed: March 30, 2022)
80 IMF, "Fads and Fashion in Economic Reforms: Washington Consensus or Washington Confusion?," October 26, 1999
81 오피니언 뉴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충돌", September 11, 2015
8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July 1, 2021

제적 변영이 중국 경제와 정치에 점진적으로 민주적 가치인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그들은 2001년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세계경제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제적 성장은 안정적인 공산당 정권하에서 일어나며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2020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중 95%의 중국인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변영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⁸³

세계 2위 경제로 부상한 중국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서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로 부상하였다.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의 중국의 명목 GDP는 1조 3,390억 달러로 미국(10조 5,820억 달러)의 12%에 불과하였지만, 2020년 중국 명목 GDP는 14조 7,230억 달러로 미국(20조 8,940억 달러)의 70% 수준까지 도달하였다(그림1).⁸⁴ 중국은 이에 더하여 기술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도 성장하였다.

G7그룹이 '콘월 컨센서스'를 통해서 향후 세계 경제 질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G7이 창립되던 1970년과 2020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먼저, G7이 전 세계 총 GDP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1970년 67%에서 2019년 45%까지 감소하였다(그림2).⁸⁵ 여전히 소수의 국가가 집중된 세계 경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전보다 낮아졌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부상으로 인해서 G7은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 시위 강경 진압은 G7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정부 주도의 경제 모형과 불공정한 무역관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G7 국가 중 몇몇 유럽 국가와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 G7 내에서의 대응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경제국을 포함하는 주요 20개국(G20)이라는 G7에 대체적인 협의체도 존재한다. G20은 세계 인구의 5분의 3을 점유하며, 세계 GDP의 80%를 점유하고 있다.⁸⁶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흥경제강국들이 대거 포함된 G20이 G7보다 현재의 세계 경제를 더 잘 대변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러한 맥락 속에서 G7을 주도하는 미국과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첨예한 경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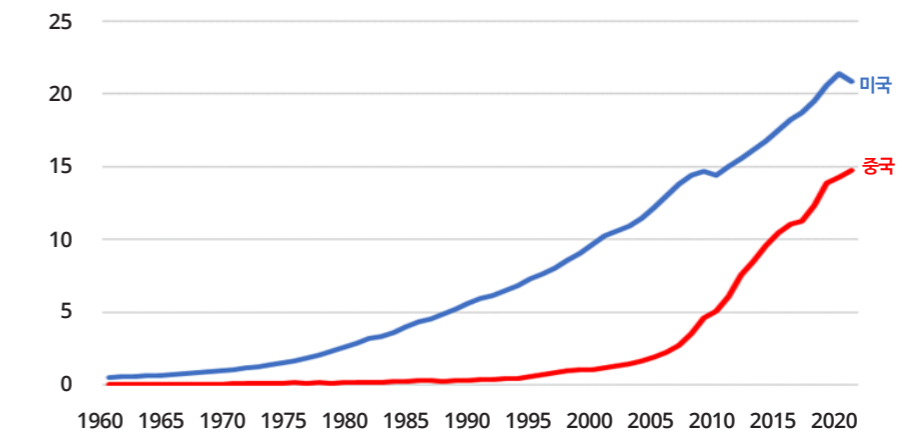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임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COVID-19의 대유행으로 세계 물류에 차질이 생겨버린 것에 대해서 기존의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난 2021년 10월 EU와 오랫동안 무역 갈등을 빚어온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냈다.⁸⁷ 또한 지난해 21년 11월에는 미국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본, 한국, 인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과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경제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대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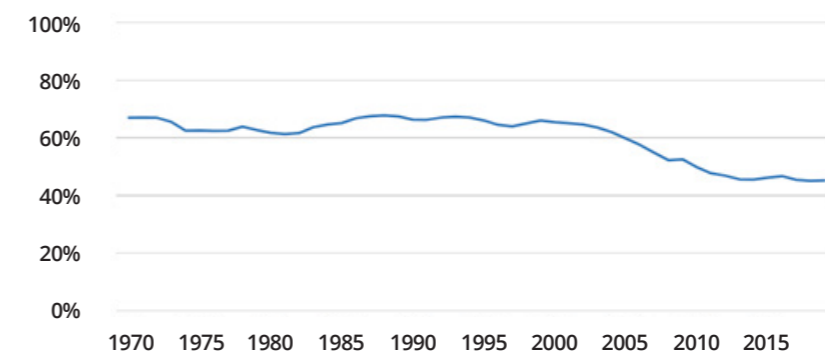
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구축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다루게 될 주요 분야로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준 마련 ▲공급망 탄력성 ▲탈(脫)탄소와 클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확립 등을 나열하였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이 아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비교 (단위: 현재 미화)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2 세계 GDP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율 (1970-2019년)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83 Harvard Business Review, "What the West Gets Wrong About China," May 2021
 84 세계은행, GDP (current US\$) - China, United States,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8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ere Is the G7 Headed?," June 14, 2021
 86 Ibid
 87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연합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는 할리데이비스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쉐넬 버선, 담배, 옥수수, 오렌지주스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맞섰다.

믿을 수 있는 국가들 사이의 공급망인 이른바 '신뢰가치 사슬(Trust Value Chain)'을 잇기 위한 무역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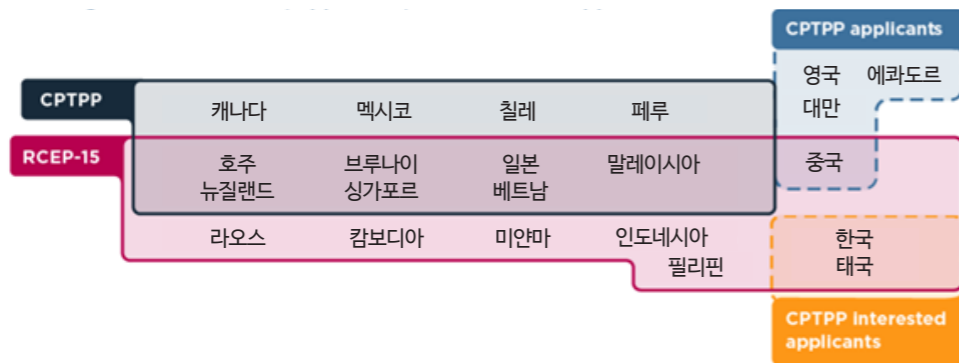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서방 주요국은 글로벌 조세 질서도 개편하여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막고, 새로운 경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에 130여개국이 서명하였다.⁸⁹ 이어서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가 합의되어 2023년부터 매출을 올린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⁹⁰ 또한 글로벌 무역에서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인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도입도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⁹¹

나아가 현재 미국과 일본을 주도로 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

방의 국가들이 1949년에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를 조직하여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수출 통제하였던 체제의 21세기 버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양자암호,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²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CPTPP에 공식적인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했다(그림 3). RCEP는 당초 아세안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미국 주도 협정을 견제하려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중국 주도 협정으로 부각되었다.⁹³ 동 협정에 가입하는 15개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인구 규모 면에서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포괄하는 대규모 협정이다.

그림 3 RCEP과 CPTPP 가입국과 가입신청국



출처: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88 조선비즈, "美,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November 22, 2021
 89 연합뉴스, "OECD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130개국 서명(종합)", July 2, 2021
 90 중앙일보, "136개국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법인세 1.5조 해외 낸다", October 1, 2021
 91 머니투데이, "EU 탄소국경세, 더 센 놈이 온다...철강 화학업계 어쩌나", January 11, 2022
 92 The Yomiuri Shimbun, "Japan, U.S. considering export controls for advanced technology," January 10, 2022
 93 경향신문,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발효...주춤한 중국 경제 '날개' 다나", December 31, 2021



그리고 COVID-19를 계기로 중국은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색 공급망은 중국이 단순 조립 공장을 벗어나 반도체 같은 중간재와 자본재 등 핵심 품목까지 자국 내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⁴ 이를 위해서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자급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계획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⁹⁵

또한 중국은 디지털 및 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의 핵심광물인 희토류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국유기업을 합병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차, 풍력발전기 등에 필수인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수요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련과정에는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 전반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 내 자국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⁹⁶

더 나아가서,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일대일로 사업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며 아프리카의 핵심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코발트를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하는 국가인 콩고의 코발트 광산을 이미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콩고의 코발트 생산 광산 19곳 중 15곳이 중국 기업 소유이거나 중국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⁹⁷

마지막으로 그 동안 중국은 중국 정부의 정치 및 인권 문제를 제기한 국가 및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입 규제 및 불매 운동 등의 경제 보복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제 보복을 앞으로 법적으로 체계화하겠다는 목적을 지닌 '수출 규제 백서'를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통해 수출 규제 질서를 강화하고,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연대를 통해 무역과 공급망 등 중국 경제를 압박할 경우 수출 규제를 맞대응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⁹⁸

94 조선비즈, "20년 만에 번복점에 선 글로벌 공급망", May 3, 2021
 95 서울경제, "美 AVC-中 홍색 공급망 충돌...고민 깊은 삼성-SK-LG", April 8, 2021
 96 조선비즈, "발톱 드러낸 中 '원자재 무기화' 야심...세계최대 '희토류 공룡' 만든다", December 6, 2021
 97 서울경제, "中, 코발트 독식 노린다...콩고서 생산량 2배 늘려", January 7, 2022
 98 Deloitte, "Supply chain resilience in the face of geopolitical risks," December 3, 2021

미중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

미중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상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다. 몇몇 전문가들은 갈등 양상이 그동안의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촉진했던 세계화로부터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여전히 양국간의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남겨둔 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갈등 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와 관계없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요소가 향후 그들의 경영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협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시나리오 분석'이 있다. 딜로이트가 미중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결과⁹⁹, 향후 10년간의 그러한 갈등 양상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첫 번째,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우위를 얻기 위해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상호 간의 자제와 협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미중 간 디커플링 시나리오'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며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양국 간의 상호의존성을 급격하게 줄이는 양상이 될 것을 예상하는 시나리오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핵심물품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을 것이다. 양국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전자통신 장비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서로 간의 의존성을 줄여 나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산업의 상품군에

서는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의 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로 자국안보에 관련된 핵심물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첫째, 핵심 소재 공급망은 매우 집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제련과 공급의 막대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설계 자동화(EDA)와 IP코어에 있어서 전 세계 75%를 공급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핵심 소재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을 때 최상의 생산성을 발휘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1, 2위의 거대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은 혁신을 이루기 위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에 소유된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중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생산시설을 미국의 국경 안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시설 이전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그들이 핵심 소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미국 회사가 아닌 다른 해외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분야에 한정된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는 다른 산업군에 위치한 기업들이 양국의 경제 패권 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헐적인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핵심 소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디커플링 시나리오

디커플링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것을 가정한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핵심물품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국 안보와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한 양국간의 무역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제3의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역시 감소할 것이며, 기업소유구조도 철저하게 조사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현지화 및 정보규제도 강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은 중국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배터리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제련된 리튬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 경쟁 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미국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 소재 범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제품도 무역장벽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갖는 경쟁력과 이에 따른 경제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미국 농산품에 대한 수입을 제3국에서 대체할지도 모른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디커플링 시나리오에서도 아시아 및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 양국 시장에 모두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토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략적 경쟁 시나리오와는 상이하게, 미중 간의 수입금지 조치가 매우 빠르게 실시될 것이며, 이는 핵심 소재만이 아닌 광범위한 상품군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 위치한 중국 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 위치한 미국 기업 역시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매우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시사점

세계 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구축한 경제 질서를 하에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을 하며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관세장벽은 낮아졌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거래비용 역시 감소하며 국가 간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최소화 전략에 의거하여 GVC를 급격히 확대 발전시켜왔다.¹⁰⁰

우리나라는 COVID-19와 연관된 공급망 병목 문제가 부상되기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사드(THAAD)배치 문제를 가지고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보복,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2019년 7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을 겪으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은 미국 행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경제규제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미·중 간 경제전쟁은 동맹 vs. 비동맹 간 경제전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소재 및 부품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국에서 생산, 공급하는 **홍색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공급망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와중에도 기술 및 사회가 발전하며 세계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영역 및 요소를 고려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무대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환경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GVC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강화해야 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수입 대체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단시간에 배제하거나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여 공급망 국가를 분산화 하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GVC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그린, 사회적 공정과 책임 등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99 Deloitte, "Supply chain resilience in the face of geopolitical risks," December 3, 2021

1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June 30, 2021